

# David Korty

23 April - 30 May 2009

## 데이비드 코티展



Untitled (figures waiting in line), oil on linen with pencil and collage, 173 x 244 x 3.8 cm, 2008

현대적 소재를 화면에 담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코티는 초기작에서 인물 없는 풍경을 위주로 그렸다면 근작에서는 거리의 모습과 도시 풍경이 어우러진다. 일견 일본 우키요에 목판화 기법의 영향이 드러나는 코티의 작품 세계는 추상과 형상의 경계에서, 회화와 판화의 경계에서 독특한 자기만의 회화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평평한 면과 깊은 면, 갑작스런 생략과 연결, 회화적 요소와 건축적 요소의 조화가 그의 작품을 특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모노톤의 주조색과 깊이 있고 차분한 색의 변주는 그의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매력 중 하나다. 작가는 색채의 사용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물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다. 그가 인물을 선택해 그릴지라도 그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물의 내면적 개성보다, 작가가 파악한 그 인물의 주관적 색채이다. 코티가 현대적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던한 감성을 근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러한 그의 작업 방식에 알맞다. 작가가 카페에 앉아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하는 대신 사진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화가로써의 자신과 이미지와 거리감을 갖기 위함이다. 작가는 사진의 이미지는 이미 과거이며, 그 이미지는 카메라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으로 포착된 화면 구성에 따라 그의 회화의 원근법은 화면 속 인물의 눈높이에 기준을 맞추고 있다. 작가의 시선과 인물들이 만나는 지점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물들의 포즈는 순간순간 포착되기 때문에 대체로 측면을 향하고, 따라서 시선을 화면 밖을 향하게 된다.

장면의 선택은 직감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진행에서 사진을 매체로 옮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슬라이드 필름을 프로젝트를 통해 캔버스 화면에 전사하고 코티는 그 윤곽선을 아주 빠르게 옮겨 그린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적 재현을 아니며 오히려 직감적으로 거칠게 이루어진다. 사진을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코티는 단순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새롭고 무언가 연상시키는 결정체로 만든다. 그리고 배경은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패턴으로 겹겹이 쌓여 표현된다, 옷의 색깔, 인물의 머리 모양, 심지어 인종까지도 일발적인 조화와 균형의 형태로 변형된다.

즉 작가의 시선은 인물 개개인의 개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물의 표정이나 생김새는 일반화되어 있고, 입은 옷, 포즈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작가의 관심이 내적 표현보다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음을 말해준다. 코티의 작품에서는 인물, 사물, 배경의 구분이 없다. <무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서 각 인물의 외형을 그리는 곡선은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주하고, 이들은 무기체와 유기체의 구분 없이 인물, 옷 장식, 나무로 까지 우아한 곡선이 울려 퍼진다. <무제(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서도 정면 가운데 자리 잡은 벤치는 우아한 곡선과 기하학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벤치의 유기적 선은 군중들의 형태에 반영되며, 또 벤치의 기하학적 선의 구조는 화면 배경을



Untitled (figures on bench), oil on linen, 145 x 107 cm, 2008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부여해 준다. <무제(오른쪽을 향한 세여자들)>에서는 중성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오히려 인물이 들고 있는 물병이라든가, 티셔츠에 꽂혀 있는 선글라스가 더 눈에 띄는데, 이는 작가의 회화적 재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에선 모든 요소들 간의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군중들은 디자인의 한 부분인 듯 부유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티가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작가는 디자인된 세계와 자연적 세계, 건축적 요소와 기하학과 유기적 형태, 식물과 자동차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작가는 "우리는 특정한 모던 월드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 인공물 간에 우열을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현대의 한 이미지리로 냉담하지 않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중성적 색채에 개성을 상실한 인물들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차갑지 않다.

art in culture 이성희 기자